

분류	주일강단 2부
제목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성경	출8:25-32
일시	2024년 4월 21일
장소	성암교회
강사	정영신 목사 (정리: 김홍구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출애굽기 8:25-32)

출8: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출8: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출8: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8: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출8: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출8: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출8: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8: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 독취 자료 ♣

서론)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드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시대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고, 더 악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란다.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에 가라고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이 없어서 자꾸 불안하니가 육신의 방법으로 의식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았지만 달라진 것이다.

2. 다윗이 16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 믿음도 물론 좋았지만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기도의 시이다. 문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내용이 시편인 것이다.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힘든 시대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3.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전도는 내게 있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

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냥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게 있는 주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4.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행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다. 행통의 응답의 문이 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은 자였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을 쫓아간 것이다.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어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현장은 갈급하다. 죽어가고 있다.

5.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길을 찾아내면 된다. 올바른 길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6. 다윗, 요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는 줄 알면서도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과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다. 왜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지 않는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대로 자신의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 길을 찾는데 굉장히 힘들다. 맞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인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처음부터 올바른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려면 길을 반드시 잘 들어서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다. 되는 것처럼 같지만 남이 보기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다. 길을 한 번 잘못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이다. 그 길이 오늘 있다.

본론)

1.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8:25-27)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 예배드려야 한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예배 성공은 말씀 붙잡는 것이다. 말씀 붙잡는 것은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인되게 되어 있다.

1)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1)드디어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꾸 재앙이 내리니까.. 이번에는 파리 떼가 득실거린다.

(2)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되겠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여기서 드리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 가서 드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한 자의 말인 것이다. 피 제사드리러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려야 한다. 누구 예기를 들고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예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러.

(3)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름 받자마자 출3:18에 예배

드리게 하겠다. 회생을 드려야 한다.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종교인,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길을 잃어 버렸다. 다른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착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결국에는 망할 것인데...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길을 잃은 것이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2)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자꾸 무너집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1)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요8:44에 “너희 아버지 마귀” 아니 사람들이 왜 자꾸 곪을 합니까?

너희 아버지 마귀다. 안 되는 것이다. 왜 이 말을 못 깨닫고 있는가? 왜 마귀 얘기하냐고 한다. 그 누구도 못 깨닫고 있다. 성경은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했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온갖 이상한 것을 다 갖다 놓는 것이다. 그런데 진리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들어가는 자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다.

(2)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3:15)

답을 주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희생제사의 예배인 것이다.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3)절대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3)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1)자꾸만 전 세계에 재앙이 내리고 있는 이유?

일본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인구의 10분에 2가 정신문제에 걸려 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집안에 한두명씩은 문제와 있는 것이다. 거기보다 심각한 나라가 몇 나라 북한이다. 전쟁만 보고 가는 나라. 인권이 없는 나라. 여기에 대한 한 마디의 말도 없다. 심각한 나라다. 공산국가 이전에 종교가 되어버린 나라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지 않는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펄쩍 펄쩍 뛰며 운다. 왜인줄 아는가? 그 사람이 완전 신이다. 정말 안타까운 나라인 것이다. 우리나라 위, 옆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신차려야 한다. 한국교회마저도 위기가 왔다.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이것이 실체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가운데 범죄 가운데 나타나까 어려운 삶을 볼 수 있는 것이다.

(2)“양의 피” 그것이 깨달아야 저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못 알아 들었지, 안 들었지 그 피를 말해야 하는 것이다. 들은 것은 많은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일예배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나를 위하여서 바라는 기도하라고까지 한다. 봤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 말을 바꾼다.

(3)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받지만 길을 잘 들어서야 됩니다.

그 길로 우리가 다 들어온 줄 믿는다.

2. 가나안 땅으로 가라

1)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3일 길쯤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됩니다.

예수 피로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이다.

2)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사업, 학교)에 적용되어야 한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은 기도응답을 반드시 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분이 여러분 회사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모든 곳에 꽂아야 하는 것이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 안 바뀌는가?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사는 길이 사는 길인 것이다. 이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3.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8:29)

1)사명을 깨달아라

2)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라 (사명 깨달아라)

▶29절 누가 기도 응답 받습니까? 양의 피 비밀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시켜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 사명 깨달은 자에게는 응답을 문 여십니다.

바로가 계속 거짓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못을 박는 것이다.다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에 거짓을 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모세의 나이 80인데 모세의 손에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모습 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다.

결론)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린다.

1)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

예배의 비밀을 아는자.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자이다.

2)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아는 자

메시아 오실 땅. 전 인류를 살릴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가야 하는 이유를 아는 자이다.

3)사명 깨달은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여신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신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응답의 문이 안 열리면 나가지 마세요.

응답이 안 오면 안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 응답의 문은 계속 열릴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성경 출애굽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 레위기의 키가 피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모르면 레위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양의 피 나가라 들어가라 모르는 것이다.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다.

▶사명 가진 모세가 비록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배경도 없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